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2019-1호)

2018년도 제8차 회의록(요약)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회의명

○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12. 14(금) 08:00~10:05

○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2인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위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경호 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황병관 위원
○ 농협중앙회	이구환 위원
○ 수협중앙회	정만화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위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최규완 위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길연 위원
○ 참여연대	이찬진 위원

□ 기타 참석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경일(간사대행)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안효준

○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 박성태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진영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2018년도 제7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

○ 의결안건 의결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 18-10	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의결 18-1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보고 18-15	2018년도 제7차 회의록(요약본)
보고 18-16	2018년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별도보고	성과급 예산 부족 상황 해소 방안 보고

7. 토론요지

□ 의결 제18-10호 :『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 이경상 위원 : 상향 조정은 맞는 방향으로 보임. 그리고 국내주식 보다는 해외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향성에서 볼 때 부합하기도 함. 다만, 시장상황이 좋아야 액티브위험을 더 많이 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함. 그런데 시장상황이라는 게 변동주기 측면보다는 세계경제가 그동안 양적완화기조였는데 최근에는 긴축규제로 전환이 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금리 오를 때마다 신흥국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거품붕괴의 큰 충격의 학습효과들이 많이 있음. 그렇게 볼 때 해외주식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해외주식확대 보다는 국내주식을 더 줄이고 해외채권 쪽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봄. 국내주식 비중은 그대로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있어 너무 증시 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만약에 전체적인 세계증시 사정이 안 좋을 경우에 대한 부수적인 안전장치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게 걱정이 됨. 0.22%정도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봄.

○ 이찬진 위원 : 기금운용본부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음. 올해 국내주식시장 경우 변동성이 연초 대비 13%, 고정대비로 거의 20%까지 가는 것이고, 해외주식도 변동성이 만만치 않음. 내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기금운용본부는 어떤 입장인지.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내년 전체 세계 및 국내경제 및 시장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장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함.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 기조를 내년에 2~3회 계속 유지할 텐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피크 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EU 경우도 어제 양적완화를 연말 계획대로 종료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도 1.9%에서 1.8%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는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AA에 따라서 해외주식, 채권, 해외채권, 해외대체를 늘려가는 방향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음.

○ 최규완 위원 : 과거 실적치를 보니 초과실적수익률이 목표를 줬다 하더라도 실적 달성이 계속 안 되고 있음. 목표 초과율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액티브위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2014, ’15, ’16년에 액티브위험 자체가 실적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률은 0.20%도 달성을 못했음. 투자 자체가 운용본부의 거버넌스가 바뀌어서 심하게 risk taking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목표치가 오히려 지금 0.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지, 왜냐하면 0.22%로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나 다른 수익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임. 그렇다면 또 이게 국민연금이 수익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일정 수익을 달성하는 게 ’19년에 운용직의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훨씬 낫지 않을

지 생각이 듦.

○ 윤경식 부위원장 :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전체 의견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간사대행 최경일 : 성과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정보비율 IR 있음. IR은 0.5%를 유지했다가 0.4%로 조금 다운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실적치는 IR이라는 것이 운용직의 운용역량인데 이 실적치가 계속 목표치에 하향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지금 목표 초과수익률을 이렇게 IR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높게 설정하는 것이 기금운용본부의 IR 실적치와 맞지 않다 그래서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전년도 수준 유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음.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그보다는 기금운용본부에 어떤 미션을 주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초과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자는 측면이 보다 강조됐다고 볼 수 있어 상향 조정(안)으로 의견을 주셨음. 그래서 이 목표 초과수익률에 대한 선택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정량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외 글로벌 연기금이라든지 주요 큰 기금들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하는 행태를 연구 했었는데 정답은 '없다' 였음. 아무래도 정량적인 요인이 판단근거가 되지만 결국은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정성적인 판단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

음. 그래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그리고 기금운용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 초과수익률을 정해 주셨으면 함.

○ 정만화 위원 : 국내 주식을 감소한다고 했는데 국내기업의 사정이라든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 아닌지. 그런데 국내하고 해외하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처지에서 무리하게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좋겠음. 그리고 안정적 보수적인 운용 거기에 성과평가보상 측면에서 동기부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수익률을 적게 잡음으로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음.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음.

○ 이경호 위원 : 현행 유지 (안)과 상향하는 두 (안)이 있고 지금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상향하는 (안)임. 전반적인 내용이 상향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든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기금운용본부의 그런 의견도 있음. 목표 초과수익률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동기부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결부된다는 점을 볼 때 목표 초과수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현재 자산운용인력의 이탈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현행 목표 초과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경상 위원 :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해 놓으면 하나의 실링으로 작용하여 시장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에도 그 이상을 넘어서

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임.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 이게 액티브위험이라는 게 tracking error인데 그것을 운용하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운용하기는 힘듦. 자기 신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보면 거기에 벤치마크에서 얼마 떨어졌는지 하는 이런 시장변동성에 따라서 추정오차라고 하는데 tracking error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보다는 주어진 투자전략에 따라 시장상황에 따라 전술적 자산배분 그리고 전략적 재산배분 하에서 전술적 자산배분을 운용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벤치마크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미세한 부분까지 tracking error 0.5%에서 0.64%까지 이렇게 옮기는 것을 예측하고 투자할 수는 없음.

○ 이경상 위원 :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데 혹시 시장상황이 결국은 세계경제가 이대로 가면 주저앉겠다는 이런 위험에서 양적 완화 기조가 굉장히 더 느슨하게 내려가는 것임. 그러다보면 증시 사정이 계속,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음.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기금운용본부의 전체적인 미션은 목표 초과수익률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그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세는 변함이 없음.

○ 최규완 위원 : 0.2%냐 0.22%냐 사실은 이 초과수익률 실적치를 보면 그게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운용본부가 목표

치를 0.20%, 0.24%에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봄. 그리고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어쨌든 마켓포트폴리오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버넌스가 바뀌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함. 또 제안을 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수익률이나 누적수익률을 같이 보여 주면 언론 등 비판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간사대행 최경일 : 그런 내용들은 대외홍보를 할 때 보완을 하겠음. 목표 액티브위험이 실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목표 액티브위험이라든지 기금본부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액티브위험을 자산군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목표 액티브위험과 기금본부가 산출하는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간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적치를 보면 이보다 위험을 더 많이 쓰는 연도들이 많이 있었음. 실적치가 목표치보다 계속 높았음. 그래서 실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음.

○ 이상철 위원 : 경제환경이나 기타 사항, 불확실성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기금운용본부의 동기부여, 직원들의 동기부여 필요성들도 고려해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다만, 늘 다음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금운용본부의 책무 중에 하나라도 초과 목표수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달성해서 또 연금재정에 기여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잡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좀 높이는 방안 그래서 내년에 불확실성들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목표수익률을 높이는데 동의를 함. 다만, 불확실성들이 심하기 때문에 (안)으로 따지면 1(안)에 동의함.

○ 이경호 위원 : 내년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상황에서 높인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의 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상황이 불확실성이 큰데 사실 경제적인 충격이 한 번에 shock 형태로 온다면 오히려 투자기회 발굴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충격은 조그만 소파 형태로 계속 미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이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투자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분산효과를 통해 시장충격에 대비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음.

○ 이경호 위원 : 목표치를 높인다 했을 때 수익률의 안정성들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안정성에, 실질적인 운용하는 측면에서 큰 위험선호현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확하게 0.22%, 0.25%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박성태 운용전략실장 : 알파는 2010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다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부여한 것은 기금 전체자산 벤치마크에 대한 수익이고 여기 알파는 기금운용본부가 어떻게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해 어떻게 알파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tracking error를 많이 쓰게 되면 위험해지는 것이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tracking error를 적게 쓰면 상대적으로 또 안정감은 있음. 다만, 운용할 때의 여건이 그런 액티브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고,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액티브운용의 여건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음. 다만, 해외 쪽에서는 시장이 크니까 액티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환에 대한 병목은 있음. 예컨대 시장상황이 좋을 때 해외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면 달러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환에서 병목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글로벌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규모로 사려고 할 때도 예컨대 1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 있으면 투자 진입이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음. 예컨대 위기가 되면 그것마저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할 때도 환이라는 병목은 있음.

○ 간사대행 최경일 :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에서 0.27%까지 모형산출결과가 나왔고 0.20%은 전년도 수준임. 내년도 포트폴리오는 올해

5월 중기자산배분 하면서 정해져 있는 것임. 거기에 플러스 초과로 얼마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목표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는 했는데 크지는 않음. 그래서 수익률 격차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 조금 낮추는 것, 그것에 따라 포트폴리오 위험성이 크게 변동하고 크게 낮춰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유의미한 변동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됨.

○ 이경호 위원 : 굳이 목표 초과수익률을 높여서 자산운용 하는 인력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림. 자산운용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른 민간 쪽의 자산운용하는데 비해 처우나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좋다고 듣지는 않고 있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 드림.

○ 이상철 위원 :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하여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이 밖에 나가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문제이지 목표 초과수익률에 관련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작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가령 이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리면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이 크게 부담을 가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심리적으로, 여러 분들이 신경을 써 주느냐 안 쓰느냐 그런 기분적인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음.

○ 김성주 위원 : 실무진들한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

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위원님들이 다르신 것 같음. 오늘 다루자고 하는 것은 수익률 목표가 아니라 그 수익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 달성하도록 또 다른 목표를 주는 것임. 이번에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가 서로 다른 (안)을 주니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초기에는 목표 초과수익률이 0.3%로 높았음. 2016년까지 한 번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적이 없음. 당연히 그에 따른 성과보상도 한 번도 없었던 것임. 그런데 작년에 0.86%으로 처음으로 초과수익률 달성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에는 동기부여 한다고 0.2%로 낮춰줬음. 초과 달성을 했는데 다시 낮춰준, 당시의 여러 토론이 있었음. 도달 가능한 목표치를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고,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 했는데 딜레마는 한 번 달성했는데 다시 0.22%나 0.25%로 또 올려야 되는지 하는 그 안건이 올라온 것임.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으로 그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그대로 할 것인지,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0.22%로 올릴 것인지, 성과평가보상위원회에서 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0.25%면 1년으로 돌아가는 것임. 그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신진영 : 0.22%에서 0.25%가 된다고 해

서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음. 실제로 보면 이미 자산배분에 대해 결정되어 있고 전술적 자산배분 과정에서 실제로 위험을 0.25%가 됐다고 해서 운용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님. 결국 보상단계에서 0.22%하고 0.25%가 되면 그 차이에 따른 보상수준이 달라짐.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는 0.2%가 되든 0.25%가 되 든 크게 운용전략이나 전술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수준에는 그게 얼마가 될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게 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허용위험한도를 목표 허용위험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다고 해서 높은 위험을 그만큼 더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허용위험한도가 tracking error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벤치마크를 벗어나서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변동성이 높다보면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tracking error가 생김. 그래서 최근에 실현액티브위험이 올라가고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본부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더 take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tracking error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10년부터 수치를 보면 실제로 목표 초과수익률 달성한 작년이 아주 예외적으로 국내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된 것임. 현재와 같이 매년 성과평가 과정에서 실제 기금운용을 되돌아보게 되면 현재 거의 700조 원 가까운 대형기금이 해외투자를 늘린다하더라도 아주 액티브한 위험을 통해 초과수익을 적극적

으로 달성하기에는 현재 녹록한 여건은 아님. 그래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권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 특별히 여건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목표 초과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제 운용역들에 대한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유지로 했고 사실 2018년도에 수준을 낮출 때 논의가 그 논의였음. 그래서 그 수준을 크게 여건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

○ 이경상 위원 : 다른 각도에서 선택을 하려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핫이슈는 대체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가입자 부담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입자부담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그러다보면 결국은 쓰는 것은 늘어나고 부담은 스테이 되면 이게 뚫어야 될 부분은 결국 국민연금에서 운용을 잘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쪽에 사람들이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표 수익률이 계속 0.20% 제일 낮은 수준인데 이 낮은 수준이면 이 부분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결국 국민연금이 탈출구가 없이 그냥 부담도 안 늘리고 지출만 늘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무적인 판단에서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봄.

○ 간사대행 최경일 : 어떤 강조라든지 선호가 있어서 (안)을 올리는

것은 아님. 다만, 작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음. 작년에도 성과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수준 안정성이란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년도 수준인 0.25%를 제안 했었고,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또 그 의견이 뒤집어졌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하향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갔었고, 그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까지 와서 그대로 0.2%로 유지가 된 것임. 작년에는 목표 액티브위험 산출치가 0.5%에서 0.61%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0.4%를 곱해보면, 작년에도 IR은 0.4%였기 때문에 작년에 0.2%에서 0.24%정도까지 밖에 (안)을 도출할 수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0.25%로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산출된 결과는 0.20%에서 0.24%까지였음. 그런데 올해는 목표 액티브위험이 산출된 결과 값이 커졌기 때문에 목표 초과수익률 값 자체가 설정된 값보다 커진 것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측면에서 보면 목표 초과알파의 설정목표는 그것까지 보는 것은 아님. 그것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계속 달성을 못하니 기금운용직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런 측면이지 당초에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하는 목표 자체는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찬·반이 있을 수 있음. 결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한 목표, 비전 이런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이 보다 중요할 것 같음.

○ 유재길 위원 : 민주노총에서는 항상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

을 늘릴 것인지 이런 입장을 물을 때 항상 주식 비중을 늘리는 데 반대해 왔음. 그리고 국내주식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릴 것인지 할 때도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냈었음. 이것도 초과수익률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에서 검토한 대로 올해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으로 의견을 내겠음.

○ 이상철 위원 :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함. 그런데 성과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처우개선은 기타 임금이나 다른 처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성과급은 목표를 줌으로 해서 그것에 초과 달성을 하면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지, 그래서 기금운용 인력의 처우문제는 별도로 다른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논의를 하고 성과급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했던 1(안)에 동의함.

○ 황병관 위원 : 지금 시장도 녹록하지 않고 또 내년 시장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위원회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안)이 나왔고 평가위원회에서는 0.22%, 0.25%가 나왔는데 안건 상정은 평가위원회 (안)이 상정됐음. 이렇게 상정할 때는 기금운용 내에서 득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안)은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운용직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안)대로 하려면 또 수정(안)을 내야됨. 그것도 위원장님께서는 판단을 해 보시고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받아서 회의를 통과시킬 것인지. 여기에 한 번

더 설명 들어보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안)을 채택이 안 되는지, 안 그러면 1(안), 2(안), 3(안)이 올라올 수도 있었음. 전문위원회 (안)이 상정이 안 되고 평가위원회 (안)만 상정이 됐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임.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안)을 받아 상정해서 보상전문위원회 (안)도 같이 상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윤경식 부위원장 : 1(안), 2(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안)이고,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쪽에서는 모든 (안)을 다 검토할 수 있음. 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수정된 (안)을 합의가 되면 수정된 (안)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황병관 위원 : 수정된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지

○ 이찬진 위원 : 성과평가보상 부분은 작년에 오버된 부분 가지고 3년을 보장받는 것은 맞아서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일 것 같음. 오히려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웃바운드로 해서 해외에 바이어스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 자산배분 할 때 어떤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 시기나 이럴 때 보면 잘못하면 바이어스 된 부분의 과도한 비중이 밖에 나갔다가는 그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면서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오히려 SAA쪽의 부분이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듦. 0.22% (안) 그대로 찬성함.

○ 이구환 위원 : 작년에도 이 계수를 결정할 때 계량모형의 산출결과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는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예.

○ 이구환 위원 : 계량모형 산출 결과 값을 가지고 1(안), 2(안)을 올린 것 같음.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견을 낸 내년도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그리고 운용결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달성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1(안)이 맞다고 보여짐.

○ 이길연 위원 : 운용직들의 보수수준, 성과급 지급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몰랐음. 이 목표 초과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위험을 부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음.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도 듦. 만약에 성과급 문제는 차후에 부수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투자라든지 분배 자세에 있어 좀 더 능동적일 수 있다고 하면 높지는 않더라도 다소나마 인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 의견은 상향 조정(안) 0.22%p로 생각을 하고 왔음.

○ 윤경식 부위원장 :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현행 유지하는 0.20% 하고

복지부의 제1(안) 0.22%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거수로 결정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황병관 위원 : 1(안)에 동의함.

○ 간사대행 최경일 : 0.2% 또는 0.22%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음. 그런데 0.20%과 0.22%는 큰 차이는 없음. 포트폴리오에도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음. 다만, 운용직의 성과급에 과연 내년도에 성과를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 두 개를 비교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음. 달성 여부의 문제지만 그동안 2017년도가 사실 아웃라이어 성격이 있어 굉장히 초과 달성을 했지만 그동안 실적치를 보면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든 간에 예측하기로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음. 그러면 판단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에게 어떤 미션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음. 간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수로 투표를 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음. 의견합의 형태로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음.

○ 최규완 위원 : 지금 0.20% 또는 0.22% 이 2가지 (안)을 논의하면 되는지.

○ 윤경식 부위원장 : 예.

○ 이찬진 위원 : 격론을 벌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 소프트하게 참신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다수 의사가 대체로 어떤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음.

○ 윤경식 부위원장 : 카운트를 할 테니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괜

찮겠음.

○ 간사대행 최경일 : 0.20%, 0.22%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됨.

○ 황병관 위원 : 말씀 드렸음.

○ 유재길 위원 : 처음 올해 유지(안)에 의견을 냈는데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상철 위원 : 1(안)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큰 안건이 아니어서 따르겠음.

○ 최규완 위원 : 0.22%나 0.20%라고 해서 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agency problem 있거나 underinvestment 이러지 않을 것 같음. 그리고 이 목표가 상징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낮추는 것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함. 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된다 하더라도 0.20%에 찬성함.

○ 이경호 위원 : 0.20%에 찬성함. 다만, 대세가 1(안)이면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음.

○ 이길연 위원 : 0.20%과 0.22%가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음.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실무자 분들께서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밖에 보여 지는 것도 중요하니 이런 쪽으로 해 주면 일하기가 더 편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생각도 듦.

○ 이구환 위원 : 1(안)에 의견을 내겠음.

○ 정만화 위원 : 1(안)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려서 성과급하고 관련된다는 것은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음.

○ 이찬진 위원 : 0.20%.

○ 이경상 위원 : 1(안).

○ 김성주 위원 : 운용직과 국민들 중간에 있어 입장을 안 밝히겠음.

○ 윤경식 부위원장 :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 자꾸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아까 어느 분이 정무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1(안), 0.22%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람.

□ 의결 제18-11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 이찬진 위원 : 기금에서 유일한 복지사업이고,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함.

○ 이경호 위원 : 원안에 동의하고 차제에 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발굴하는 연구사업을 제안 드리겠음.

○ 이상철 위원 : 원안에 동의함.

○ 윤경식 부위원장 :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음.

□ 보고 제18-1호 :『2018년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및 별도보고『성과급 예산 부족 상황 해소 방안 보고』

○ 이경호 위원 : 성과급은 인건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인지. 기재부 지침에 의해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최근 10년 동안의 지급률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성과급 지급은 50%씩 하다가 2012년도 귀속분을 지급하는 2013년도 예산에서는 30%로 떨어졌음.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낮추라고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성과급이 책정이 되고, 계속 성과를 달성 못해 계속 불용되다보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전년대비 불용된 예산들은 매년 전년도 편성할 때 깎음. 그래서 계속 낮아져서 작년 편성할 때 굉장히 낮게 편성된 것임.

○ 이경호 위원 : 성과급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임. 불용예산이라 불용처리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기재부에서 그런 지침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 우리가 줄 수 있는 성과급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불용예산을 쓰는, 어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봄.

○ 간사대행 최경일 : 지속해서 인건비 편성 노력과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음.

○ 김성주 위원 :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임. 상식에 속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제때 지급하지 못한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 7월에 제기하고 정부, 청와대, 국회 관련된 내용을 협의 안 한 적이 없을 정도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시원하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는 적이 없었음. 결국은 공단과 복지부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음. 공단 측은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음.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상의 원칙만 강조하고 예상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런 사례가 되었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도 있는데 요청했던 것은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 그래서 최소한 급여, 성과급 이런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면 충분히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할 텐데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와 승인을 하도록 해 놓고 ‘스스로 결정해서 왜 하지 않습니까?’라는 반문이 제일 답답했던 것임.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음.

○ 유재길 위원 : 국민연금공단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이 종료됐는지 모

르겠지만 이 성과급이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높게 나와서 발생되는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획재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음. 다음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부터 논의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를 바랐었는데, 우려하는 바는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용예산이 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듦.

○ 이찬진 위원 : 성과평가가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함. 그때 추경을 편성한 것처럼 기금운용 관련 계획을 변경해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간사대행 최경일 :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 드림.

○ 황병관 위원 : 성과가 없을 때는 성과급을 지급 안 하는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 지급 안 하고 그 예산은 불용되고 기금으로 다시 귀속됨.

○ 황병관 위원 : 상여금 성격이 아닌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음.

○ 황병관 위원 : 연봉제 기관은 성과가 없어도 기본은 200%까지 줌

○ 간사대행 최경일 : 성과급이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 가능하게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관들은 예측 가능해서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불용도 안 생기고 유지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매년 성과급이 변동이 있어 일률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작

년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성과가 좋았음. 그래서 성과급이 많이 모자랐던 것임.

○ 황병관 위원 : 안 좋을 때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연봉제인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없음. 호봉제임.

○ 최규완 위원 : 운용직하고 비운용직하고 급여 차이가 상당한지

○ 김성주 위원 : 큼.

○ 최규완 위원 : 성과보상 플랜에 의하면 성과가 들쑥날쑥할 때 이것을 연동해서 준다는 것이 make sense 하지 않음. 실질적인 운용직의 기본적인 고정급여를 올려줘서 인센티브가 보상이 되어야 함.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작년에 예외라고 했지만 아주 특수한 케이스임. 수익이 안 좋을 경우, 보상을 못 받고 그 보상이 분명히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면 퇴사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ixed incomed을 많이 줘서 훨씬 더 워킹할 수 있는 동일한 돈이라면. 그런 생각이 듦.

○ 간사대행 최경일 : 기본급도 통제받고 있고, 정해져 있음.

○ 최규완 위원 :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높여야 되지 않는지.

○ 간사 최경일 : 협의했음.

○ 이찬진 위원 : 고문법상의 한계치라고 함.

○ 김성주 위원 : 예산 당국하고 기금운용직들의 기본급 또는 성과급 등을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다가 경험한 것인데, 왜 그것을 스스로 결정 못합니까 라고 반문함. 모든 게 다 통제받고 통제하면

서 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당하는 것이 우리 현실임.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임.

○ 이찬진 위원 : 기타 공공기관으로 풀어달라는 게 십 수년간의 숙원사업임.

○ 최규완 위원 : 여담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안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임. 이 운용직이 역량이 된다면. 실제로 레몬마켓처럼 갈 수도 있는 것임. 시장이 전주에 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있는 것을 막는 게 이 보상에 연동하는 게 잘 워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듦.

○ 유재길 위원 :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을 초과하는 방식인지, 이사장님 재량권인지.

○ 김성주 위원 : KIC는 운영위원회에서 함. 국민연금공단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임.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인 것 같음.

○ 유재길 위원 : 이사장님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사장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결정이나 의견을 한정하여 정리해 주는 방안(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듦.

○ 간사대행 최경일 : 기재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고, 집행지침 상 지급하기가 어려워 유연하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이것은 또 다른 과임. 기금운용 변경하는 것도 별도 예산실이고 이것은 다른 과인데 여전히 안 된다고 해서 공단하고 복지부하고 결단을 한 것임.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임.

○ 이찬진 위원 : 의결권행사 관련하여, 장관님도 지난 6월 5일에 운용위원회 개최 시에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참여하셨음. 그런데 당일자로 사주 측에 횡령·탈세 사안 등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하고 면담 요구하셨음. 그런데 그 이후 대한항공 한진KAL의 책임있는 답변이나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이 피드백이 안 들어왔음. 그러면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회사 측의 적절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겠음. 적극적인 공개서한 발송까지 하시고 그 책임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답변조차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우선 본부에서 한진KAL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비공개대화를 했고 공개레터 보냈고 그 뒤 비공개 경영진면담까지 했음. 면담 결과 서로 비공개, 경영진 면담은 서로 간의 협약에 의해서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외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음.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음.

○ 이찬진 위원 :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조치사항 관련된 게 나왔는지, 이렇게 피케팅도 하고

밖에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차기 주총 때 연임 안건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해임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 그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입장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사전에 기금운용위원회 입장에서 대한항공이나 한진KAL 비공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사전에 필터링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건 아니면 기금운용본부건 간에 현재 진행되는 수준으로 봐서 최악의 경우 1월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이 안건으로 됐을 때 충분히 고민해서 조직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린 것임. 사회적으로 자꾸만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을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민노총이나 한노총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음.

○ 이경호 위원 : 예.

○ 이찬진 위원 :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요구가 국민적 여론이 점점 커질 것 같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기금운용위에서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법정기간에 맞는 그 시점에 안건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진행상

황이나 점검을 해서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본부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 정도임. 내용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임.

○ 황병관 위원 : 적극 동의함.

○ 유재길 위원 :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음.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 7월 3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하면서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수 있다고 수정(안)으로 의결된 바가 있음.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근거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됨. 오늘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보장해줘야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한 의사표출 기회가 있음.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하든지 진행을 할 것임.

○ 이찬진 위원 : 현재 주주권행사 관련된 수탁자책임위원회 활동지침이나 이런 개정된 지침에 보면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결정을 만약에 안 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안건으로 다룰 수조차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전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어떤 입장인지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는지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고민하는 내용들

을 보고 받아야지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안건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일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항공이나 한진KAL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원래의 취지, 주주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부분을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 간사대행 최경일 : 몇몇 위원님들이 1월 회의개최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회의를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석을 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제안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음. 일단 제안을 하셨다는 것을 남기고 실무적으로는 각 위원님들께 이런 제안이 있었고 1월 소집요구가 있었다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여쭤보겠음. 여쭤보고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공유를 드리고, 그런 다음 회의개최 여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 유재길 위원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1/3이 요구하면 개최되는 것인지. 1/3은 본 것 같은데 안건 제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몇 분 위원들이 정식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안건을 채택하는 건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지금 안건 부의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10월에 보고 드렸던 개편(안)에는 들어가 있었음.

○ 유재길 위원 : 장관만 안건 부의할 수 있다는 건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안건부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회의소집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음.

○ 이찬진 위원 : 현재 규정은 안건을 제안하면 정식의 채택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위원장님이 채택하시면 안건이 되는 것이고 채택 안 하면 현장에서 안건으로 채택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음.

○ 유재길 위원 : 위원들이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반대로 위원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면 위원들이 제안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위원 몇 분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정식안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내용들은 논의는 하실 수는 있겠음. 안건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림. 현행 규정상 위원님들께 안건 부의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경호 위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기능에 보니 기금운용지침 투자정책성 및 의결권행사지침과 관련해서는 운용위원회 기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소집과 관련해서는 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1/3 이상

의 요구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인 운용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관련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열어야 된다고 판단이 됨.

○ 간사대행 최경일 : 지금 네 분이 요구를 하셨음. 위원이 20명임. 1/3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됨.

○ 황병관 위원 : 차기 회의일정이 정해지면 위원들이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상정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논의도 없이 상정 안 할 수도 있는지.

○ 간사대행 최경일 :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많고 이석하신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공유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겠음.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겠음.

○ 윤경식 부위원장 : 2018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

8. 의결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과
18-10	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의결
18-1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의결